

## 四象醫學의 형성 과정에 관한 문헌적 고찰 —鄙薄貪懦와 喜怒哀樂을 중심으로—

이수경\*·고병희\*·송일병\*

### 요 약

연구 목적 : 四象醫學은 인간을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병증에 대해서도 치료를 달리하는 의학이다. 즉 인간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체질에 따른 차등성을 통해 각 체질 취약점의 보완을 추구하는 의학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인간 구분의 단서가 되었으며 이것이 의학으로까지 적용되는 과정 즉, 사상의학의 성립 과정을 살펴 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東武 李濟馬의 저술로 인정되는 『格致彙』, 『東武遺彙』, 『東醫壽世保元』의 문헌적 자료와 각 편의 저술시기를 통해 東武 李濟馬의 사고의 흐름과 변화를 통해 사상의학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 보는 문헌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결론 :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래의 연구 결론을 구하였다.

1. 東武는 『孟子』의 四夫之心을 근거로 인간을 심육에 따라 鄙人, 薄人, 貪人, 懦人으로 구분하였고 인의 예지의 사단을 장부에 배속하여 심육을 몸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格致彙』의 鄙人, 薄人, 貪人, 懦人과 『東醫壽世保元』의 太少陰陽人의 직접 연결은 동무 사고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동무는 『東醫壽世保元』 「四端論」과 「擴充論」을 통해 鄙薄貪懦人의 心慾과 太少陰陽人의 情氣를 매개로 하여 鄙人은 太陽人, 貪人은 太陰人, 薄人은 少陽人, 懦人은 少陰人으로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格致彙』 「獨行篇」과 저술 연도가 동일한 『東武遺彙·教子平生箴』을 통해 의학적 사고의 성립을 살펴 보면, 東武의 차등적 臟理는 회노애락의 性情 구분이 臟理의 차이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臟腑 強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고 이를 喜怒哀樂으로 설명하였으며, 또한 『東醫壽世保元』의 臟腑 大小는 強弱에 근거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3. 四象醫學의 의학적 설명 도구는 喜怒哀樂이다. 회노애락은 鄙薄貪懦와는 달리 善惡의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으면서 기의 승강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용적 설명 도구로 동무가 의학을 설명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였다. 四象醫學에서의 喜怒哀樂은 證治醫學의 陰陽五行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4. 喜怒哀樂은 『東醫壽世保元』에서 性, 情, 氣로 설명되는데 회노애락의 性과 情은 장부 대소를 설명하는 근거로 체질마다 다른 장국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각기 表氣와 裏氣를 損傷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喜怒哀樂의 氣는 氣의 升降을 설명하는 근거로 哀氣와 怒氣는 陽으로 直升과 橫升하고 喜氣와 樂氣는 陰으로 放降과 陷降한다. 이러한 회노애락은 順動逆動의 특성과 相成相資의 특성을 지니는데 哀怒喜樂의 相成相資는 사상의학 고유 개념으로 四象人病證論에서 언급하고 있는 性情과 心慾의 편급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이다.

## I. 序 論

四象醫學은 인간을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병증에 대해서도 치료를 달리하는 의학이다. 즉 인간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체질에 따른 차등성을 통해 각 체질 취약점의 보완을 추구하는 의학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 구분의 단서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단서를 삼았으며 이를 어떻게 의학에 적용하였는가? 또한 이는 어떻게 의학으로 발전하게 되는가?

이러한 의문은 사상의학의 성립 과정을 살피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 글을 통해 李濟馬가 사상의학을 창안하게 되는 과정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단서들에 대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또한 병증에 이르기까지 성정과 심욕이 연결되는 것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東武 李濟馬의 저술인 『格致叢』, 『東醫壽世保元』, 『東武遺稿』를 통해 鄙薄貪懦의 인간 구분과 太少陰陽의 인간구분의 관계, 太少陰

陽의 장부 대소 구분의 근거, 사상의학에서의 喜怒哀樂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本 論

### 1. 심욕의 구분

개체의 특수성을 중시하는 체질의학인 사상의학에서 인간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자. 이는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 人稟臟理와 人趨心慾으로 인간을 각기 네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살펴 볼 수 있다<sup>1)</sup>. 人稟臟理에 따른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구분을 이는 사람이 받은 네가지 臟理 즉 肺, 脾, 肝, 腎 장부 대소에 따라 구분된다.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 『東醫壽世保元·四端論』

1) 人稟臟理는 본인의 의사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 선천적인 稟賦이다. 즉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人趨心慾은 본인이 심욕을 조절하는 정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후천적인 나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人稟臟理는 부모에 의해 부여되었던 선천의 자리이며 人趨心慾은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후천의 심욕이다.

그러면 人稟臟理의 장부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는 喜怒哀樂 性の 遠散, 宏抱, 廣張, 深確하는 것과 情의 促急하는 차이에 의한 것이다.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遠散 則氣注肺 而肺益盛 怒情促急 則氣激肝 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 而哀情促急 怒性宏抱 則氣注脾 而脾益盛 哀情促急 則氣激腎 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 而樂情促急 喜性廣張 則氣注肝 而肝益盛 樂情促急 則氣激肺 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 而喜情促急 樂性深確 則氣注腎 而腎益盛 喜情促急 則氣激脾 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東醫壽世保元·四端論』

위와 같이 人稟臟理를 통한 인간 구분의 근거는 喜怒哀樂의 性情 차이<sup>2)</sup>이다.

人趨心慾에 따른 鄙人, 薄人, 貪人, 儒人의 구분은 仁義禮智를 버리고 放縱하거나, 偷逸하거나, 偏私하거나, 極慾하는 심욕의 차이에 따라 鄙人, 薄人, 貪人, 儒人이 되는 것이다.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 儒人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 『東醫壽世保元·四端論』

위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첫째, 太少陰陽人과 鄙薄貪儒人은 각기 다른 것인가? 둘째, 이러한 체질 구분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를 살피기 위해 鄙, 薄, 貪, 儒와 仁, 義,

禮, 智에 대해 동무의 철학서인 『格致藁』를 중심으로 살펴 보자.

鄙薄貪儒를 살피기 위해 먼저 『格致藁』 각 편의 저술 순서를 살펴 보기로 한다. 『格致藁』는 卷之一 儒略, 卷之二 反誠箴, 卷之三 獨行篇으로 구성되어 각 편의 저술 시기를 살펴 보면 「儒略」의 「事物」에서 「四戒」까지는 1880년(庚辰年, 동무44세)에 저술하여 1889년(己丑年, 동무53세)에 교정하고 「天勢」부터 「大風箴」까지는 1889년(己丑年, 동무53세)에 저술을 시작하여 1890년(庚寅年, 동무54세)에 완성하였다. 「反誠箴」은 1892년(壬辰年, 동무56세)의閏 6월에 저술을 시작하여 12월에 초고를 완성하고 다음해 1893년(癸巳年, 동무57세)에 교정하여 저술을 완성하였다. 「獨行篇」은 1882년(壬午年, 동무46세)에 저술하였다.

이를 연도순으로 살펴 보면 「儒略」의 「事物」에서 「四戒」까지를 44세에 저술을 시작하였으나 그 해에 중단하고 46세 되던 해에 「獨行篇」을 저술하여 완성하였다. 53세에 「事物」에서 「四戒」까지를 수정하고 54세에 「天勢」부터 「大風箴」의 저술을 시작하여 54세에 「儒略」을 완성하였다. 56세에 「反誠箴」의 초고를 짓고 57세에 「反誠箴」을 교정하고 그 해 7월에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게 된다.

동무의 저술로 인정되고 있는 『東武遺藁』의 저술 연도가 표시된 글 중 「教子平生箴」은 1882년(壬午年, 동무46세)에 저술되어 「獨行篇」과 같은 해에 저술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3)</sup>. 이를 도표로 살펴 보

2)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喜怒哀樂의 性情은 장부 대소 구분의 설명 도구이다. 이는 인식의 방편인 것이다. 즉, 東武는 각 장부의 대소에 대한 인식을 동무는 먼저 가지고 있었던 듯 하다. 그리고 희노애락은 이를 설명하는 방편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東武遺藁』의 「驕子平生箴」에서 少陰과 少陽의 臟腑 強弱을 설명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東醫壽世保元·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 表病證과 裏病證을 설명하면서 「性是 表氣를 傷하고 情은 裏氣를 傷한다」는 설명 또한 表病證과 裏病證을 먼저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병증 정신을 확립한 후에 性과 情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면 아래 표 1과 같다.

이처럼 동무가 44세에 『格致叢·儒略』의 '事物'에서 '四戒'로 저술을 시작하고 46세에 「獨行篇」을 완성하고 53세 「儒略」을 교정하여 54세에 「儒略」을

완성하고 56세에 「反誠箴」을 저술하여 57세에 완성하였으니 저술 시기로 본다면 44세에 저술한 「儒略」의 事物에서 四戒까지가 가장 초기 생각이며 다음 「獨行篇」이 동무 초기 생각임을 알 수 있다.

〈표 1〉 東武의 著述 年度

나 이	연 도		저 술	비 고
1	1837	丁酉		출생
~	~			
39	1875	乙亥		亡陰證에 六味地黄湯투여
~	~			
44	1880	庚辰	儒略(事物~四戒) 저술	
45	1881	辛巳	遺叢(辛巳五月元山港~)	
46	1882	壬午	獨行篇완성 遺叢(教子平生箴)	
47	1883	癸未		
48	1884	甲申		
49	1885	乙酉		
50	1886	丙戌		진해현감
51	1887	丁亥		
52	1888	戊子		
53	1889	己丑	儒略(事物~四戒)를 교정 11월 儒略(天勢~) 집필 시작	
54	1890	庚寅	11월 儒略완성	
55	1891	辛卯		
56	1892	壬辰	閏6월~12월 反誠箴 초고	
57	1893	癸巳	1월~2월 反誠箴 교정 7월 東醫壽世保元 저술 시작	
58	1894	甲午	4월 東醫壽世保元 완성	
59	1895	乙未	11월 遺叢抄 저술(時色耳目~)	고향하향
60	1896	丙申	遺叢(鎖撫時上疏, 傳令本邑捕執網)	최문환의 난 평정
61	1897	丁酉	濟衆新編저술 遺叢(上大臣書, 丁酉元山港~)	고원군수
62	1898	戊戌		
63	1899	己亥		11월 亡陰證 荊防地黄湯투여
64	1900	庚子	東醫壽世保元 교정(의원론~태음인론)	9월 卒

3) 「教子平生箴」의 저술 시기는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동무의 의학적인 사고의 형성 시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는 鄙薄貪懦에 대한 발전 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데 『格致彙·儒略』의 「事物」에서 '薄夫之心常憂患, 頑夫之心常恐懼, 懦夫之心常忿懣, 鄙夫之心常好樂'이라 하여 인간을 薄夫, 頑夫, 懦夫, 鄙夫로 구분하여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一天之同胞 好德者多助 嗜利者寡助 薄夫之心 常憂患也. 萬物之群居 謹厚者必興 殘刻者必亡 頑夫之心 常恐懼也. 四方之會通 周蜜者能成 格戾者不入 懦夫之心 常忿懣也. 百工之和利 有恥者能任 偷惰者不行, 鄙夫之心 常好樂也. 『格致彙』「儒略·事物篇」

이러한 薄夫, 頑夫, 懦夫, 鄙夫의 구분은 『孟子』의 「盡心章下」의 鄙夫, 薄夫, 頑夫, 懦夫의 구분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할때 鄙薄貪懦의 심육의 구분은 「孟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sup>4)</sup>.

孟子曰 聖人百世之師也 伯夷柳下惠是也 故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 聞柳下惠之風者 薄夫敦 鄙夫寬 奮乎百世之上 百世之下 聞者莫不與起也 非聖人而能若是乎 而況於親炙之者乎 『孟子·盡心章下』

『儒略』의 鄙夫, 薄夫, 頑夫, 懦夫 구분은 『格致彙』「獨行篇」에서 鄙者, 薄者, 貪者, 懶者로 발전하여 각기 경계해야 할 점등을 설명한다. 心慾에 따라 鄙者, 薄者, 貪者, 懶者로 구분하는 서술은 1893년(癸巳年, 東武57세)에 저술을 시작한 『東醫壽世保元』의 「四端論」에서 인간 구분의 단서가 되어 人趨心慾에 따라 鄙人, 薄人, 貪人, 懦人으로 구분하였다.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 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 『東醫壽世保元·四端論』

이러한 심육의 청탁은 聖인과 衆人の 다름의 근본이 되며 이 心慾을 밝게 가려야 浩然之理가 나온다고 하였다.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鄙薄貪懦之心地清濁 四不同中 有萬不同 人欲之闊狹也 聖人與衆人 萬殊也.

浩然之氣 出於肺脾肝腎也 浩然之理 出於心也 仁義禮智 四臟之氣 擴而充之 則浩然之氣 出於此也 鄙薄貪懦一心之慾 明而辨之 則浩然之理 出於此也.

『東醫壽世保元·四端論』

『東醫壽世保元·四端論』의 仁義禮智를 버리고 放縱, 偷逸, 飾私, 極慾하는 마음과 鄙薄貪懦의 心慾의 연관은 『格致彙·獨行篇』의 '鄙者不可與禮, 薄者不可與仁, 貪者不可與義, 懦者不可與智'에서 그 처음을 찾아 볼 수 있다<sup>5)</sup>.

鄙者不可與禮 薄者不可與仁 貪者不可與義 懦者不可與智. 『格致彙·獨行篇』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 浩然之氣와 浩然之理를 언급하면서 仁義禮智의 浩然之氣가 폐비간신의 四臟에서 출한다고 한 것은 「獨行篇」의 仁義禮智 四端의 장부 배속과 일치한다. 仁에 해당되는 測隱之心은 出於肺하고 禮에 해당되는 辭讓之心은 出於脾하고 義에 해당되는 羞惡之心은 出於肝하고 智에 해당되는 是非之心은 出於腎한다고 하였다.

曰詩云 天生烝民好是懿德 孟子曰 若夫爲不善 非才之罪也 人之才德 出於何 而莫不善懿者 可明言耶 曰 測

4) 김달래, 이제마의 학문적 연원과 사상의학의 형성시기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Vol2. No1. 1990, P17

5) 장현건, 獨行篇의 구성과 지인론에 관한 연구, Vol3 No1, 사상의학회지, 1991, p28

〈丑 2〉 『格致彙』와 『東醫壽世保元』 鄙薄貪懦인과 太少陰陽人

추정	
(太陰人) … 貪人 - 棄仁而極慾者 - 薄者不可與仁 - (仁) - 測隱之心 出於肺	
(太陽人) … 鄙人 - 棄禮而放縱者 - 鄙者不可與禮 - (禮) - 辭讓之心 出於脾	
(少陰人) … 懦人 - 棄義而偷逸者 - 貪者不可與義 - (義) - 羞惡之心 出於肝	
(少陽人) … 薄人 - 棄智而飾私者 - 懦者不可與智 - (智) - 是非之心 出於腎	
『東醫壽世保元·四端論』	『格致彙·獨行篇』

隱之心 出於肺 辭讓之心 出於脾 羞惡之心 出於肝 是非之心 出於腎 是故 凡人之人有肺脾肝腎者 不修則己 若修之則 皆懿德也 『格致彙·獨行篇』

이와 같이 仁義禮智와 鄙薄貪懦를 연관지어 살펴 볼 수 있었고 이 인의예지는 각각 肺脾肝腎의 四臟과 관계를 맺으므로 仁義禮智, 鄙薄貪懦, 肺脾肝腎, 太少陰陽人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6)</sup>. 흔히 鄙人은 太陽人에, 薄人은 少陽人에, 貪人은 太陰人에, 懦人은 少陰人에 연결하여 心慾을 설명한다. 이 연결을 근거로 『獨行篇』에서 언급하고 있는 仁義禮智의 四端과 臟腑의 연결 그리고 仁義禮智와

鄙薄貪懦의 연결을 지어보면 이는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 언급하고 있는 太少陰陽의 四象人 특성과 鄙薄貪懦者와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鄙人, 薄人, 貪人, 懦人의 구분을 『獨行篇』의 仁義禮智가 각기 肺脾肝腎의 장부에서 출하는 것과 연결하면 太少陰陽人과 鄙薄貪懦人의 연결은 太少陰陽人의 大小 臟腑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태양인은 脾, 태음인은 肺, 소양인은 腎, 소음인은 肝이 연결되는데 이러한 연결을 설명할 일관된 논리가 없는 것이다. 즉, 『獨行篇』과 『東醫壽世保元』에서 鄙薄貪懦者와 太少陰陽人이 일관되게 연결되지는 않는다<sup>7)</sup>.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무

6) 인체 구분의 단서가 되는 것은 연결 고리들을 찾아 보면 鄙薄貪懦와 喜怒哀樂, 仁義禮智와 喜怒哀樂을 생각할 수 있다. 비박탐나와 회노애락의 연결은 『獨行篇』에서 볼 수 있는데 '鄙者之眉端 施施然有喜色者 興味在於 耕野之貧業也 薄者之 邊兀兀然有怒色者 驕愎在於 竭忠之賤屬也. 貪者之 間戚戚然有哀態者 慾利在於 致產之困氓也 懦者之 觀上欣欣然有樂容者 意想在於 侮失勢之窮土也.' 라 하여 鄙者는 喜色이, 薄者는 怒色이, 貪者는 哀態가, 懦者는 樂容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회노애락과 鄙薄貪懦의 연결에 대한 특별한 단서는 되지 못한다. 인의예지와 회노애락의 연결은 鄙薄貪懦의 心慾에 대한 설명이 『獨行篇』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仁義禮智는 『儒略』에서 『獨行篇』에 이르기까지 『格致彙』 전편에서 끌고루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仁義禮智를 통해 사상의학과 연계를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獨行篇』에서 鄙薄貪懦者와의 연결지는 구절이 있었다. 그리고 仁義禮智와 喜怒哀樂의 연결은 『反誠箴·乾箴』의 智之所往 天下不哀 仁之所來 天下皆樂 禮池所臨 天下不怒 義之所立 天下皆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智는 哀에 仁은 樂에 禮는 怒에 義는 喜에 배속하였다.

7) 이에 대해서는 장현진, 『獨行篇』의 구성과 지인론에 관한 연구, Vol3 No1, 사상의학회지, 1991, p32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獨行篇』의 후반부에는 동위수세보원의 사단론과 연결을 이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장기와의 연계를 설명해 놓고 있으며 사상구조적 지인론이라 할 수 있는 사심신물로의 각 사단의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 사사단은 『儒略 反誠箴』에서 더욱 그 내용이 구체화되게 되며 사상인의 설정에 있어 근본 철학으로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獨行篇』에서는 아직性情에 대한 개념설정이 미미한 상태로서 회노애락의 표현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은 없으며 그러한 관계로 사상인에 대한 것은 없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다만 鄙薄貪懦者의 구분으로 그 태동의 조짐을 보여줄 뿐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는 인간 구분의 근거를 鄙薄貪懦 심욕의 차이에서 얻었으나 이를 결론 맺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즉, 『格致藁』와 『東醫壽世保元』의 연결은 동무 사과의 시간적인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심욕을 근거로 한 鄙人, 薄人, 貪人, 懦人의 구분과 장부 대소에 따른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구분이 다르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 동무의 인간 구분의 사과가 『格致藁』에서 그 시작을 볼 수 있다면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그 정화를 볼 수 있는데 『格致藁』와 『東醫壽世保元』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사과의 최종적 결정인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太陽人과 鄙人을, 太陰人과 貪人을, 少陰人과 懦人을, 少陽人과 薄人을 연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擴充論』에서 성기와 정기를 언급하면서 太少陰陽人 정기의 취우침으로 인해 放縱之心, 偷逸之心, 偏私之心, 物慾之心이 생긴다고 한 것은 放縱, 偷逸, 偏私, 物慾의 마음이 인의예지를 버리고 심욕이 취우침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鄙薄貪懦인의 구분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少陰之人 雖好爲雌 亦或宜雄 若全好爲雌 則偷逸之心 必過也. 少陽之人 雖好外勝 亦宜內守 若全好外勝 則 偏私之心 必過也. 太陰之人 雖好內守 亦宜外勝 若全

好內守 則物慾之心 必過也.

『東醫壽世保元·擴充論』

이는 아래 표3과 같이 연관지어 볼 수 있다.

放縱之心, 偷逸之心, 偏私之心, 物慾之心의 심욕이 비인, 박인, 탐인, 나인과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을 잇는 매개가 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格致藁』의 심욕의 취우침이 의학에서는 性氣, 情氣로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sup>8)</sup>.

앞에서 살펴 보았던 『格致藁·獨行篇』의 내용과 『東醫壽世保元』을 연계해서 살펴 보면 아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동무는 『孟子』의 四夫之心을 근거로 인간을 심욕에 따라 네가지로 구분하는 근거를 얻었으며 이를 토대로 『格致藁·獨行篇』에서 鄙人, 薄人, 貪人, 懦人의 구분을 하였고 仁義禮智의 사단을 인체 장부에 연결하는 방법을 통해 심욕을 몸 에 적용하는 근거를 갖게 된다. 그러나 鄙人, 薄人, 貪人, 懦人이 太少陰陽人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東武 생각의 결정이라 할 수 있는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비박탐나인과 태소음양인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性氣와 情氣를 통해 심욕의 편차로 인간 구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心慾의 편차로 인한 구분과 臟理의 편차로 인한 구분은 동일한 것으로 鄙人은 太陽人, 貪人은 太陰人,

〈표 3〉 『東醫壽世保元』에서의 太少陰陽人과 鄙薄貪懦人

太陰之人	物慾之心 必過	- 棄仁而極慾者	貪人
太陽之人	放縱之心 必過	- 棄禮而放縱者	鄙人
少陰之人	偷逸之心 必過	- 棄義而偷逸者	懦人
少陽之人	偏私之心 必過	- 棄智而飾私者	薄人
『東醫壽世保元·擴充論』		『東醫壽世保元·四端論』	

8) 性氣와 情氣는 心慾을 의학으로 표현하는 술어이다. 鄙薄貪懦의 心慾을 의학적 테두리 안으로 넣어 마음의 취우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 性氣와 情氣인 것이다.

薄人은 少陽人, 懦人은 少陰人으로 볼 수 있으며 『東醫壽世保元』의 「四端論」과 「擴充論」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2. 臟理의 구분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사상의학에서 心慾은 鄙薄 貪懦로 구분되었고 臟理는 肺脾肝腎 四臟의 대소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證治醫學에서 肝心脾肺腎의 五臟으로 장부를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다. 증치의학에서는 心을 君主之官이라 하였으나 다른 장과 구분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 기능에 있어 有形之心과 無形之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四象醫學의 臟理는 心<sup>9)</sup>과 肺脾肝腎을 구분하였으며 心은 肺脾肝腎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폐비간신을 조절하는 역할이다.

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膻中 光明瑩徹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付 頤臆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 「東醫壽世保元·臟腑論」

이러한 동무의 心에 대한 사고는 유학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心은 心慾이 출하는 곳이며 수양의 대상이다. 肺脾肝腎은 先天稟賦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肺脾肝腎만을 인체 장리로 파악하고 心은 차원을 달리하여 구분한 것은 『格致叢』의 아래 구절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sup>10)</sup>. 「反誠箴」에서는 몸을 설명함에 있어 心은 차원을 달리하여 설정하고 肺脾肝腎을 장리로 하여 耳目鼻口, 肺脾肝腎, 四肢百骸, 腸胃胞子로 몸을 구분하여 天人性命으로

설명한다. 이 耳目鼻口, 肺脾肝腎, 四肢百骸, 腸胃胞子の 天人性命은 『東醫壽世保元』에서 耳目鼻口, 肺脾肝腎, 頭肩腰腎, 頤臆臍腹의 天人性命으로 발전한다.

耳目鼻口 爭其點也 肺脾肝腎 爭其雄也 腸胃胞子 爭其莊也 四肢百骸 爭其強也 「格致叢·反誠箴」

耳目鼻口 行於天也 四肢百骸 行於人也 肺脾肝腎 行於性也 腸胃胞子 行於命也 「格致叢·反誠箴」

『獨行篇』에서는 몸을 인식함에 있어 耳目鼻口, 肺脾肝腎, 志意魂魄, 屈伸動靜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曰詩云 天生烝民好是懿德 孟子曰 若夫爲不善 非才之罪也 人之才德 出於何 而莫不善懿者 可明言耶 曰 測隱之心 出於肺 辭讓之心 出於脾 羞惡之心 出於肝 是非之心 出於腎 是故 凡人之有肺脾肝腎者 不修則己 若修之則 皆懿德也 四聽之達 出於耳 四目之明 出於目中禮之言 出於口 中禮之貌 出於鼻 是故 凡人之有耳目口鼻者 不修則己 若修之則 皆善才也 曰 人之才德之所出 既聞之矣 又敢問 人之私慾之所出 曰人之慾 出於志意魂魄 人之私 出於屈伸動靜 大人之志意魂魄以治國平天下 爲心故 其精神氣血 深遠廣大也 細人之志意魂魄以富家貴身 爲心故 其精神氣血 淺近狹小也 大人之屈伸動靜 以誠心敬身 爲身故 其身首股肱 中規準繩也 細人之屈伸動靜 以放心懶身 爲身故 其身首股肱不中規準繩也 「格致叢·獨行篇」

『格致叢』에서 심욕을 통한 인간 구분을 살펴 볼 수 있었다면 최근 발굴된 『東武遺藁』<sup>11)</sup>의 「教子平

9) 四象醫學에서 心은 太極之心, 心身の 兩儀之心, 事心身物の 四象之心으로 구분한다.  
10) 『格致叢』에서는 몸에서 肺脾肝腎으로 장리를 설명하며 몸을 耳目鼻口, 肺脾肝腎, 腸胃胞子, 四肢百骸나 耳目鼻口, 肺脾肝腎, 志意魂魄, 屈伸動靜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東醫壽世保元·性命論』의 耳目鼻口, 肺脾肝腎, 頭肩腰腎, 頤臆臍腹으로 발전하게 된다.  
11) 『東武遺藁』는 여러 종류의 글을 모은 것으로 東武의 글, 비석의 글, 정부 공문서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판본이나 출판 경위 등을 조사하여 서지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 논고에서는 「教子平生箴」의 내용을 근거로 동무 이제마의 글임을 전제로 하고 서술한다.



生箴」에서 장리를 통해 인간을 구분하는 동무 의학적 사고의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다. 『格致叢』, 『東醫壽世保元』, 『東武遺藁』 저술 연대를 살펴 보면 『格致叢』 「獨行篇」은 1882년(壬午年, 동무 46세)에 저술한 것으로 『東武遺藁』 「教子平生箴」의 저술 연도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해에 쓰여진 글로 『獨行篇』이 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동무 철학을 알 수 있다면, 『教子平生箴』에서는 아들 勇과 謹에게 전하는 교훈을 통해 체질적인 구분을 근거로 한 동무의 의학적 사고를 살펴 볼 수 있다.

(少陰) 勇(初名熊圭, 後改龍海)之狀貌, 有壽骨而有天氣, 無妬賢自棄之心, 則克享八壽, 有妬賢自棄之心, 則難望四十。(自棄之心, 欲爲難口, 自私自高之心也.)  
(少陽) 謹(初名龍岩, 後改龍水)之狀貌, 有貴節而有賤趣, 有好古向學之誠, 則能爲豪傑, 無好古向學之誠, 則終作賤夫. 『東武遺藁·教子平生箴』

이 글을 토대로 동무가 『格致叢』를 통해 心慾에 따라 鄙人, 薄人, 貪人, 儒人을 구분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마다 각기 臟腑의 強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臟理의 차이를 이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少陰人이 아들 勇의 五臟은 脾強而腎弱한 특징을 지니고 少陽人인 아들 謹의 五臟은 腎強而脾弱한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勇五臟腎強而脾弱, 陰實而陽虛, 樂巨而怒細, 哀緩而

喜急, 故凡酒色思慮所膠着, 皆傷脾而損陽. 謹五臟脾強而腎弱, 陽實而陰虛, 怒巨而樂細, 喜緩而哀急, 故凡酒色思慮所膠着, 皆傷腎而損陰.

『東武遺藁·教子平生箴』

이와 같이 소음인과 소양인은 五臟 가운데서 脾와 腎을 중심으로 강약이 상반됨을 설명하면서 '少陰은 腎強而脾弱'으로 '少陽은 脾強而腎弱'으로 설명하고, '少陰은 脾陽이 壯健해야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少陽은 腎陰이 充足되어야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보아 少陰人은 脾陽을, 少陽人은 腎陰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즉, 동무는 46세에 각 체질별 臟腑 強弱<sup>13)</sup>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臟腑의 強弱에 대한 인식은 『東醫壽世保元』에서 臟腑 大小에 대한 인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東醫壽世保元』에서 장부 대소를 설명하는 근거는 회노애락의 性情의 치우침으로, 性의 치우침은 大한 臟을 형성하고 情의 促急은 小한 臟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東醫壽世保元』 저술 당시에는 장부 대소를 회노애락의 性과 情으로 설명함을 볼 수 있으나, 46세 때 의학적 사고에서는 장부 강약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이를 회노애락의 性情으로 설명하는 것을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즉, 소음인은 樂巨而怒細 哀緩而喜急으로 소양인은 怒巨而樂細 喜緩而哀急으로 喜怒哀樂의 네가지 특성을 모두 말하는데 이에 근거하면 각 체질의 회노애락 특성 중

12) 東武의 少陰과 少陽에 대한 초기 생각이 少陰은 脾陽이 壯健함을 중시하였고 少陽은 腎陰이 充足됨을 중시한 것에서 少陰人과 少陽人 표병증의 亡陰證의 陽은 脾陽을, 亡陰證의 陰은 腎陰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소양인의 亡陰의 陰을 腎陰으로 생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東武가 『東醫壽世保元』의 亡陰證 치험례에서 39세에 六味地黃湯을 사용하여 소양인은 육미지황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육미지황탕은 후에 荊防地黃湯으로 발전하게 된다.

13)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 人稟臟理의 특징을 장부의 대소로 설명함을 볼 수 있는데 脾大腎小, 腎大脾小는 장부의 強弱을 배경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정 구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巨細'와 '緩急'의 술어중 '緩急'은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 性情으로 장부 대소를 설명할 때 情의 '促急'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회노애락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이를 성정으로 구분하는 사고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회노애락으로 장부 강약을 직접 연관짓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동무의 체질 인식은 人稟臟理에 해당되는 장부의 強弱 인식이 먼저이고, 이 현상을 회노애락으로 설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太陽人內觸小腸病論」의 표병증과 리병증의 병증 설명에서 性과 情에 따라 표리병증이 다르게 발현된다는 서술에도 유추할 수 있다.

太陽人 膈病 太重於解 病 而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 哀心深着 則傷表氣 怒心暴發 則傷裏氣 故解 表證 以戒哀遠怒 兼言之也 曰然則 少陽人 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償腎大腸氣 少陰人 樂性 傷目腎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 喜性 傷耳腦 貢氣 樂情 傷肺胃腕氣 乎 曰然 「太陽人內觸小腸病論」

즉, 이 또한 病證 인식이 선행되고 이를 喜怒哀樂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臟腑 強弱을 먼저 인식하고 이를 喜怒哀樂에서 구하였듯이 병증을 먼저 인식하고 이를 喜怒哀樂에서 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정은 이 현상들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한계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sup>14)</sup>.

勇戒急喜之心, 則脾陽壯健而疾病不生, 謹戒急哀之心, 則腎陰充足而疾病不生. 『東武遺藁·教子平生箴』

'少陰人인 勇에게는 急喜를 경계하라' 하고 '이것이 교착되면 脾陽이 虛削된다' 하였으며 '少陽人

인 謹에게는 急哀를 경계하라' 하고 '이것이 교착되면 腎陰이 耗渴된다' 하여 경계하였다. 少陰人의 喜心을 경계한 것과 少陽人의 哀心을 경계한 것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소음인은 喜樂을 경계해야 하고, 소양인은 哀怒를 경계해야 한다 하여 회노애락의 傷하는 바와 연관됨을 볼 수 있다.

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 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 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 有浪喜深樂 不可不戒 『東醫壽世保元·四端論』

이와 같이 「獨行篇」과 같은 시기에 저술된 『東武遺藁·教子平生箴』의 자료를 근거로 동무의 의학적 사고의 성립을 살펴 보면 臟腑 強弱 인식이 선행되고 이를 喜怒哀樂으로 설명하였으며 少陰과 少陽은 脾腎의 強弱 차이로 구분하여 사상인의 장부 대소 구분이 強弱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음인은 脾陽을 소양인은 腎陰을 중시하여 少陰人의 病證에서는 脾陽이 病證 인식의 단서가 되며 少陽人의 病證에서는 腎陰이 病證 인식의 단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脾陽과 腎陰은 喜怒哀樂의 편착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된다.

### 3. 심육과 장리 구분이 의학으로 형성되기까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東武는 鄙薄貪懦의 心慾과 肺脾肝腎의 臟理로 인간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질의학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의학적 설명의 도구는 肺脾肝腎 臟理의 바탕이 되는 喜怒哀樂이었다. 즉, 사상의학의 의학 체계는 회노애락에 의해 완성되었다. 鄙薄貪懦는 善惡의 가치가 포

14) 회노애락의 성정을 배제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 성정만의 해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회노애락의 성정에 대한 자리매김을 하자는 의미이다.

함된 윤리 개념이어서 기운의 승강을 나타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鄙薄貪儒의 심욕에 따른 인간 구분은 철학으로 한계지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의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善惡의 가치 판단이 들어 있지 않으면서 기운의 승강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용적인 설명 도구가 필요했다. 즉, 陰陽과 氣를 설명할 수 있는 의학의 기본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다<sup>15)</sup>. 東武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찾은 것이 喜怒哀樂이었다.

東武가 회노애락에서 이를 구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 보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格致彙』 『反誠箴』은 1892년에 저술을 시작하여 1893년에 완성하여 『東醫壽世保元』의 저술 시기와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反誠箴』의 사고는 東武의 『東醫壽世保元』 저술 당시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反誠箴·乾箴』에서 喜怒哀樂을 통한 四象醫學의 태동을 살펴 볼 수 있는 단서는 아래와 같다.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慎獨而致知者 天下之大本也 修身而行世者 天下之達道也。

往必有哀 來必有樂 臨必有怒 立必有喜 喜怒哀樂 人性也 往來立臨 天命也。

知天然後 喜怒哀樂 已發而節也 知人然後 喜怒哀樂 未發而中也 知天知人 聖之所能也 抑其次者 雖賢也 能之乎。

『反誠箴·乾箴』

喜怒哀樂을 人性으로 규정하고 『中庸』의 ‘中’ 과 ‘和’ 와 喜怒哀樂의 ‘未發’ 과 ‘已發’ 을 언급하면서

慎獨을 강조하였다<sup>16)</sup>. 『反誠箴』에서 人性으로 언급된 喜怒哀樂은 『東醫壽世保元』에서 性, 情, 氣로 설명되는데 性和 情은 장부 대소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며 氣는 기운의 升降을 나타낸다.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遠散 則氣注肺 而肺益盛 怒情促急 則氣激肝 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 而哀情促急 怒性宏抱 則氣注脾 而脾益盛 哀情促急 則氣激腎 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 而樂情促急 喜性廣張 則氣注肝 而肝益盛 樂情促急 則氣激肺 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 而喜情促急 樂性深確 則氣注腎 而腎益盛 喜情促急 則氣激脾 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東醫壽世保元·四端論』

이와 같이 喜怒哀樂은 性和 情으로 장부 편차를 형성하여 체질마다 각기 다른 臟局을 형성하여 사상의학의 기본 배경으로 인간의 차등성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다. 또한 性和 情은 각기 表氣와 裏氣를 傷하는 구도로 체질 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喜怒哀樂의 性은 表氣를 傷하고 喜怒哀樂의 情은 裏氣를 傷한다.

太陽人 哀心深着 則傷表氣 怒心暴發 則傷裏氣故 解表證 以戒哀遠怒 兼言之也。 曰然則 少陽人 怒性 傷口勝脫氣 哀情 償腎大腸氣 少陰人 樂性 傷目腎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 喜性 傷耳腦 頁氣 樂情 傷脾胃氣乎。

『太陽人內觸小腸病論』

15) 證治醫學에서는 陰陽의 특성과 五行의 순환 원리가 이 역할을 한다면 四象醫學에서는 喜怒哀樂의 氣의 升降이 음양과 오행의 역할을 하며 의학을 설명하는 도구이다.

16) 물론 『反誠箴』의 첫머리에서 언급하듯이 『乾兌箴』은 尊道中庸하여 중용의 이치를, 『坤艮箴』은 欽德大學하여 대학의 이치를, 『離震箴』은 柳下惠를 취하며, 『坎巽箴』은 伯夷를 취하여 설명하고 있음으로 인해 『乾箴』에서 『中庸』의 ‘中’ 과 ‘和’ 의 정신이나 喜怒哀樂 性情의 조절을 강조한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乾箴』은 다른 어느 편보다 사상의학의 기본 아이디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喜怒哀樂이 비중있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다.

喜怒哀樂의 氣는 證治醫學의 陰陽五行과 같은 것으로 哀氣와 怒氣는 陽으로 哀氣는 直升하고 怒氣는 橫升하며 喜氣와 樂氣는 陰으로 喜氣는 放降하고 樂氣는 陷降한다.

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順而下降<sup>17)</sup>.

『東醫壽世保元·四端論』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心慾과 의학을 연결할 수 있는 단서는 喜怒哀樂 기운의 승강을 통한 연결 고리 밖에는 東武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喜怒哀樂 氣의 升降만이 의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회노애락은 陰陽으로 정의되어 기의 승강을 나타내는 것 외에 順動逆動의 특성과 相成相資의 특성을 지닌다. 喜怒哀樂 기의 順動은 順而上升하고 順而下降하는 생리적 특성을 지닌다면 逆動은 順動과는 달리 병리적으로 작용하여 지나치면 臟腑에 손상을 주는데 哀怒의 上升之氣가 逆動하면 肝腎이 傷하고 喜樂의 下降之氣가 역동하면 脾肺가 상한다.

哀怒之氣 順動 則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 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順而下降.

哀怒之氣 逆動 則暴發而並於上也 喜樂之氣 逆動 則浪發而並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並於上 則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並於下 則脾肺傷.

『東醫壽世保元·四端論』

哀怒喜樂의 相成相資 개념은 사상의학 고유의 개념으로 상승하는 기의 특성을 지닌 喜와 怒는 相成

하며 하강하는 기의 특성을 지닌 喜와 樂은 相資하여 哀性이 極하면 怒情이 動하여 表출되고 怒性이 極하면 哀情이 動하여 表출된다.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 樂性極則喜情動 喜性極則樂情動 太陽人 哀極不濟則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侈樂無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 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東醫壽世保元·四端論』

이러한 相成相資의 특성은 四象人病證論에서 언급하고 있는 性情과 心慾의 편급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太陽人은 外感病論과 內觸病論에서 戒深哀 遠嗔 怒할 것을 강조하면서 相成의 특성을 지니는 哀怒를 언급하고 더욱 나아가 喜怒哀樂의 性情이 表氣와 裏氣를 상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太陽人의 戒深哀 遠嗔怒는 『四端論』의 喜怒哀樂 相成相資중 哀極不濟則忿怒激外에 근거한 것이다.

論曰 此證 卽太陽人 腰脊病 太重證也 必戒深哀 哀嗔怒 修清定然後 其病可愈 此證 當用五加皮壯脊湯.

『太陽人外感腰脊病論』

或曰 吾子 論太陽人解 病治法 曰戒深哀 哀嗔怒 修清定 論噎膈病治法 曰哀嗔怒 斷厚味 意者 太陽人解 傷病 重於噎膈病 而哀心所傷者 重於怒心所傷乎. 曰否. 太陽人 膈病 太重於解 傷病 而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哀心深着 則傷表氣 怒心暴發 則傷裏氣 故解 傷表證 以戒深哀 兼言之也. 曰然則 少陽人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樂性 傷目胃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喜性 傷耳腦 頁氣 樂情 傷脾胃氣 氣乎. 曰然. 『太陽人內觸小腸病論』

17) 이 구절은 『東醫壽世保元』에서 陰陽이 정의되는 유일한 구절이다. 이외에 『東醫壽世保元』에서 陰陽에 대한 설명은 소음인 병증에서 表病을 陽證으로 裏病을 陰證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있다.

소양인은 腹痛症을 설명하면서 아프지 않을 때에 항상 戒哀心怒心할 것을 강조하여 病을 치유한 임상례와 소아가 항상 복통을 호소하고 구안와사를 호소하는 경우에 백일간 戒哀心怒心하여 병을 치료한 임상례를 설명하고 있다.

嘗見 少陽人 恒有腹痛患者 用六味地黃湯 六十貼 而病愈 又見 少陽人 十餘年 腹痛患者 一次起痛 則或五六個月 或三四個月 一二個月 叫苦者 每起痛臨時 急用滑石苦參湯 十餘貼 不痛時 平心靜慮 恒戒哀心怒心 如此延拖 一周年而病愈 又見少陽人 少年兒 恒有滯澀 滿間有腹痛腰痛 又有口眼喎斜 初證者 用獨活地黃湯 一百日內 二百貼服 使之平心靜慮 恒戒哀心怒心 一百日而身健病愈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이와 같이 태양인과 소양인은 相成하는 哀怒를 항상 경계할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태음인 燥熱病은 그 원인이 侈樂無厭 慾火外馳에 있음을 강조하여 樂에 병의 근본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항상 恭敬其心 蕩滌慾火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四端論」喜怒哀樂의 相成相資에서 太陰人の 喜極不服則侈樂無厭하게 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此病 非必不治之病也 此少年 得病用藥一周年後 方死 蓋此病原委 侈樂無厭 慾火外馳 肝熱大盛 肺燥太枯之故也 若此少年 安心滌慾一百日 而用藥 則焉有不治之理乎 蓋自始病日 至于終死日 慾火無日不馳故也 諺曰 先祖德澤 雖或不得一個報 而恭敬德澤 必無一不受報 凡無論某病人 恭敬其心 蕩滌慾火 安靜善心 一百日 則其病無不愈 二百日 則其人無不完 恭敬德澤之 個個受報 百事皆然 而疾病尤甚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소음인의 藏厥病을 설명하면서 喜好不定하고 計窮力屈하여 心煩躁하게 됨을 설명하면서 寬平心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四端論」喜怒哀樂의 相成相資에서 少陰人은 樂極不成하여 喜好不定하게 됨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論曰 少陰人 喜好不定 而計窮力屈 則心煩躁也 少陰病 傷寒 欲吐不吐 心煩但欲寐者 此非計窮力屈者之病乎 蓋喜好者 所慾也 何故 至於計窮力屈 而得此少陰病乎 何不先用君子寬平心乎 然 初證傷寒 欲吐不吐 心煩但欲寐者 早用藥 則猶可免死也 其病 至於躁無暫定而厥 則勢在極危也 豈不可憐乎 此證 當用參黃湯 四逆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少陰人胃受寒裏寒病」

「少陰人胃受寒裏寒病」

이상과 같이 哀怒相成과 喜樂相資의 특성은 性이 極하면 情을 動하게 하여 哀性이 極하면 怒情을 動하고, 怒性이 極하면 哀情을 動하고, 樂性이 極하면 喜情을 動하고, 喜性이 極하면 樂情을 動하여 太陽人은 哀極不濟하면 忿怒激外하고 少陽人은 怒極不勝하면 悲哀動中하고 少陰人은 樂極不成하면 喜好不定하고 太陰人은 喜極不服하면 侈樂無厭하게 되는데 이것이 病證으로 이어져 태양인과 소양인은 哀怒를 태음인과 소음인은 喜樂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였다.

### III. 결 론

四象醫學은 人間을 太少陰陽人으로 구분하여 체질별 차등성을 중시하며 취약점의 보완을 추구하는 의학으로 체질의 구분에서 부터 병증, 치료까지 완성한 체질의학이다. 그러면 東武는 이러한 체질 구분 즉, 인간 구분의 단서를 무엇에서 찾았으며 이를 어떻게 의학으로 발전시켰는지를 살펴 보고자 「格致藁」, 「東武遺藁」, 「東醫壽世保元」의 東武 저술을 통해 사상의학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 보아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東武는 『孟子』의 四夫之心을 근거로 인간을 심욕에 따라 鄙人, 薄人, 貪人, 懦人으로 구분하였고 인의예지의 사단을 장부에 배속하여 심욕을 몸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格致藁』의 鄙人, 薄人, 貪人, 懦人과 『東醫壽世保元』의 太少陰陽人の 직접 연결은 동무 사고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동무는 『東醫壽世保元』 「四端論」과 「擴充論」을 통해 鄙薄貪懦人の 心慾과 太少陰陽人の 情氣를 매개로 하여 鄙人은 太陽人, 貪人은 太陰人, 薄人은 少陽人, 懦人은 少陰人으로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格致藁』 「獨行篇」과 저술 연도가 동일한 『東武遺藁·教子平生箴』을 통해 의학적 사고의 성립을 살펴 보면, 東武의 차등적 臟理는 회노애락의 性情 구분이 臟理의 차이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臟腑 強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고 이를 喜怒哀樂으로 설명하였으며, 또한 『東醫壽世保元』의 臟腑 大小는 強弱에 근거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3. 四象醫學의 의학적 설명 도구는 喜怒哀樂이다. 회노애락은 鄙薄貪懦와는 달리 善惡의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으면서 기의 승강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용적 설명 도구로 동무가 의학을 설명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였다. 四象醫學에서의 喜怒哀樂은 證治醫學의 陰陽五行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4. 喜怒哀樂은 『東醫壽世保元』에서 性, 情, 氣로 설명되는데 회노애락의 性과 情은 장부 대소를 설명하는 근거로 체질마다 다른 장국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각기 表氣와 裏氣를 損傷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喜怒哀樂의 氣는 氣의 升降을 설명하는 근거로 哀氣와 怒氣는 陽으로 直升과 橫升하고 喜氣와 樂氣는 陰으로 放降과 陷降한다. 이러한 회노애락은 順動逆動의 특성과 相成相資의 특성을 지니는데 哀怒喜樂의 相成相資는 사상의학 고유 개념으로 四象人病證論에서 언급하고 있는 性情과 心慾의 편급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이다.